

대구 매일신문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Ⅲ)
- 1946년 이후의 악세사리,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을 중심으로 -

은영자* · 최윤혜 · 형승희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A Study on Costume Reported in the 『Maeil Shinmun』(Ⅲ)
- Focused on Accessories, Skin Care and Hair Style -

Young-Ja Eun*, Yoon-Hea Choi and Sung-Hee Hyoung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changing aspects in accessories, skin care and hair style in 『Maeil Shinmun』 from Jan. 1, 1946 to Dec. 31, 2000,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period of 1946 to 1959, articles were about how to select accessories and the role of skin-protection cosmetics for skin care, and the cases of people wearing color makeup in pursuit of beauty increased. The hairstyle trend began to gradually shift from long hair toward short.

During the time of 1960 to 1969, how to select accessories and also how to match them with clothes were dealt with in articles, and how to massage face or use pack for healthy skin was introduced.

From 1970 to 1979, as the number of working women increased, proper use of accessories according to each occasion was introduced, and, for hairstyle, the way to keep their hair healthy and shine, rather than a fashion of its style itself, was emphasized.

In 1980~1989, as casual wear became so popular worldwide and a variety of way to use shoes, mufflers, scarfs, shawls, and hats to go with it were highlighted, practical fashion got in vogue and use of accessories with which individuality can be expressed in a simple way prevailed.

During the time of 1990 to 2000, the trend changed to the pursuit of chic using unusual accessories that reveal wearers' individuality, and especially came the boom of charming schools and makeup lessons for skin care.

The prominent trend was that men and women of the new generation expressed their individuality by having their hair partly dyed or fully dyed in various colors and tried to resemble famous entertainers. In particular, as people get more and more interested in body shape, various ways to take care of body were introduced, such as body care products and aroma treatments.

Key words : accessories, skin care, hair style.

I. 서 론

신문은 정보의 집합체이다. 이를 테면 신문은 시
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상황을 우리에게 되도록 빠
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

제, 문화 등 다 방면의 문제들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면에서 다양한 정보와 각 분야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신문의 이러한 기능은 복식에 관하여도 예외일 수 없다. 한 시대를 품미했던 복식이야말로 그 시대의 복식형태를 잘 알려줄 뿐 아니라 그 복식이 유행하였던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복식의 이러한 기능은 시대의 흐름을 전달하려는 신문들의 좋은 자료이다. 그러므로 신문에서의 복식에 관한 면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즉 복식은 그 시대의 정보자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선행의 연구 자료에서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다. 8·15해방 이후 한국복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배경에 중점을 두고 한국복식현상을 연구한 유수경¹⁾, 박길순²⁾, 서희영³⁾, 홍찬석⁴⁾, 유경숙⁵⁾, 박순양⁶⁾, 김정진, 김은정⁷⁾, 유송옥·권혜옥⁸⁾ 등이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신문에 나타난 복식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한 복식문화 특성변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진구⁹⁾, 손명임¹⁰⁾, 최선희¹¹⁾, 박찬부¹²⁾의 연구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46년부터 2000년까지 대구의 매일신문 복식관련 기사중 악세사리,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에 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여 당시의 복식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악세사리는 손수건, 이어

링, 백크레스, 구두, 선글라스, 양산, 모자, 스타킹, 핸드백, 팔찌, 부로찌, 장갑을 포함하고 피부미용은 화장품, 화장법, 피부관리를 포함한다.

매일 신문을 선택한 것은 일반대중의 시대상을 잘 반영해 주고 당시 대구문화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일신문 50년사에 실렸던 복식과 관련한 기사는 대구라는 대도시의 복식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실렸던 기사의 총체적인 내용분석은 당시의 복식현상을 이해하고 반세기 동안의 복식의 흐름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1946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연구방법은 연구기간을 박길순¹³⁾의 논문을 바탕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복식현상을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정부수립과 복구기(1946~1959), 2단계는 경제도약기(1960~1969), 3단계는 경제성장기(1970~1979), 4단계는 고도성장기 I(1980~1989), 5단계는 고도성장기 II(1990~2000)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는 매일신문 마이크로 필름과 매일신문이다. 매일신문 마이크로 필름을 자료로 하여 정리·분석한 기간은 1946년부터 1962년까지이고 그 이후 1963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일신문의 지면을 참고로 한다. 이외 본 연구의 참고자료

- 1)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3) 서희영, "우리나라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연구-1953년부터 1988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4) 홍찬석, "한국현대여성의 복식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5) 유경숙, "해방이후 한국 패션변천", *군산대학교 「논문집」*, 제23집, 1996.
- 6) 박순양, "한국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1945년 이후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7) 김정진, 김은정,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1집, 1997.
- 8) 유송옥, 권혜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제26집, 1996.
- 9) 김진구, "개화기 한국인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2)-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 연구」*, 제10집, 1992.
- 10) 손명임,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1920년부터 1945년까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1) 최선희, "조선일보에 나타난 복식변천과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일제문화정치시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2) 박찬부, "한국 복식 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제22권, 1994.
- 13) 박길순, 전계서.

로서는 관련서적, 학회지, 논문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현대복식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복식산업계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

II. 사회적 배경

해방 직후의 복식문화는 일제의 탄압과 궁핍한 유산을 물려 받는데다가 더욱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이 겹친 만큼, 정상적인 복식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해방이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때의 복식은 전통양식으로서의 회귀를 예상케 하는 바 없지 않았으나, 미군의 진주와 군정, 해외동포의 대거 귀국으로 오히려 복식의 서양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욱 컸다. 혼란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50년 6·25동란으로 전통 복식문화의 기본마저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1953년까지의 전쟁 기간과 그 직후의 전쟁복구 기간중의 의생활 수준은 겨우 대일·마카오 밀수와 구호품, 유출 군수품으로 최소한을 충족할 뿐이었다¹⁴⁾.

1960년~1969년에는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집권한 제3공화국 정부이다. 이 시기에는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과 민족의지의 수립이란 목표를 내걸고 그 구체적 실현을 각 분야에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패션에 있어서의 군사정부의 시각은 특히 부정적이었다. 패션은 국민정신을 좀먹는 퇴폐적인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한국의 '패션' 문화는 침체되었다.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당시 일선 정치에 나선 군인들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면도 있어 의복은 군사정부의 집권 후 검소한 양상을 띄기도 하였다. 커피, 외래사치품, 비밀댄스홀 등이 없어지고 외국산 의류의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국산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는 1950년대에 비하여 의상기사

나 화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60년대 이후의 사진의 발달은 패션화보와 함께 패션페이지를 많이 출현 시키는데 박차를 가하였으며 1968년에는 10월 패션 전문 종합지 '의상'이 창간되었다. 이 시기는 또 TV 방송이 시작되고 TV의 보급으로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⁵⁾. TV의 보급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보다 시각적이기 때문에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하였으며 연예인이 패션 전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⁶⁾.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중문화현상은 197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진행되어 문화의 대중화 현상과 대중문화의 수용이 급격히 늘어났다¹⁷⁾.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특성은 대중매체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TV가 전파하는 획일화되고 평균화된 복식 문화는 빠른 시간에 전국에 보급되었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산업이 발달하고 고등교육 인구의 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여성에게도 평등한 기회속에서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교육받은 여성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가치관은 변화되었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비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직업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 활동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여성은 간편함을 즐기게 되었다. 성의 구분이 좁혀지면서 의복에서의 성 차이도 줄어들게 되어 남성적인 의복의 특성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디자이너가 급증하였으며, 소수의 디자이너는 소규모의 부티크 형태로 기성복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기업들이 기성복을 생산하면서 그때까지의 저가의 시장제품으로 이루어졌던 기성복 시장에 중·고가품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품질경쟁을 함에 따라 우수한 의복이 생산되면서 소비자의 기성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¹⁸⁾.

이와 같이 '70년대는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전과매체가

14)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p.477-478.

15) 강현두,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도서출판 나남, pp.27-28.

16) 오영희, 패션잡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93.

17) 강현주,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18) 박길순, 김진구,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국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 「복식」, 15 (1990), pp.107-120.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생활 전반의 변화는 생활 욕구와 소비욕구의 다양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욕구에서 패션의 빠른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컬러 TV의 보급과 신문, 라디오,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양적, 질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서구의 문물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에는 중고교의 교복 자율화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니어북 전문 메이커가 증가하고 영패션이 새로이 대두되었다¹⁹⁾. 1986년에는 자율화 조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86년 2학기부터 교복을 자유롭게 착용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다²⁰⁾. 이에 따라 실용적,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형태의 교복이 등장하게 되었고, 주니어를 대상으로 하던 의류업체들은 방향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다.

또한 '80년대에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스포츠용품업체가 호황을 누렸다. 패션계에서는 서구 패션의 모방에서 벗어나, 한국의 마을 소개하는 한 수단으로 한복의 현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80년대는 소비패턴의 선진국화, 교복 자율화,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패션산업의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출범한 문민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신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빠른 시일안에 선진 경제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1980년대의 소비 성향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환경보호나 recycle이 사회 각계에서 일면서 패션도 그런 시류를 반영하게 되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브랜드별, 지역별,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90년도를 전후로

불어닥친 거품경제의 영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결정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경각시켜 주었고 다소의 소비위축도 함께 불러 일으켰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절약심리 강화로 중저가품이나 세일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자기판단에 따른 자기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지구 환경파괴에 대한 염려가 에코로지를 고조시켰고 패션리더층의 세대교체로 신(新)세대라 불리워지는 X세대가 새로운 패션리더로 부상하였다. 또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의 고전적 분위기가 최신 유행감각에 맞추어 나타난 트래디셔널 열풍과 함께 마켓구조의 개편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²¹⁾.

이와 같이 '90년대는 개성추구,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으로 탈유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멋과 실용성을 갖춘 옷이 유행을 이끌고 있으며, 건강, 활동성, 기능성을 포함한 개성적인 멋과 HIGH LEVEL, HIGH TECHNIC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Ⅲ. 시대별 복식현상

1. 정부수립과 복구기 (1946~1959년)

악세사리에 관한 기사는 '50년대 중반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손수건²²⁾ 이어링, 넥크레스, 구두, 선글라스²³⁾ 등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미국 패션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유행의 소개로 인해 패션이 활성화 되기는 하였으나 악세사리는 아직 그 종류나 활용법에 있어서 미숙한 단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기사를 보면 여성복의 보급량에 비해 악세사리 선택은 아직 미숙한 상태였다. 1950년대 초반의 구두형에 관한 기사로는 끈달린 단화가 일반적이었고, 1950년대 중반에는 검은색이나 흰색 가죽에 장식이 없는 단조로운 형이 대부분이었다. 1957년에는 구두의 앞코가 삼각형으로 되

19) "교복 맞춤집 전·폐업 속출" 『매일신문』, 1983. 2. 9.

20) "중고 교복 부활 교장에 일임", 『매일신문』, 1985. 10. 16. p.5.

21) 김정진, 김은연,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 - 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1집, 1996. pp.238-239.

22) "손수건의 매력을 살리는 것", 『매일신문』, 1958. 8. 6. p.4.

23) "얼굴모양 따라서 선·그라스 고르는 법 갖가지", 『매일신문』, 1959. 8. 12.

고 붙이 좁으며 뾰족한 굽에 쇠장식을 붙인 하이힐이 유행하였는데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굽이 가늘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활동하기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보통때에도 많이 신었는데²⁴⁾ 이는 서양의 복장을 그대로 모방하는 단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생활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화장품은 지금까지의 피부보호제에서 미의 추구로 바뀌게 되었고 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장법도 서구를 모방하여 색조화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화장을 잘 하는 방법, 또는 얼굴에 포인트를 주는 부분화장법등이 기사화 되었고 그외에도 계절에 따른 피부관리 특히, 직사 일광에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고 일광이 강한 시간에 외출을 할 경우에는 양산을 받치고 창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여 얼굴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여름철, 겨울철 피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등을 자주 실었다²⁵⁾.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머리모양도 점차 다양해졌다.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파마네트 스타일이 해방후 다시 등장하였고 전후에도 여전히 유행해 전기파마, 콜드웨이브 파마 등 다양한 파마법이 소개되었다.

1957년에는 「삐루에트 스타일」이 소개되었는데 앞머리는 「로맨스 라인 웨이브」를 내고 앞을 낮춰 양 옆을 높이 올리고, 뒷머리는 웨이브를 크게 내서 머리끝을 모아 자연스럽게 한 것으로 극히 간단하면서도 사치스런 헤어스타일이다²⁶⁾.

1958년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여 기사화되었다. 「카라벨라인」은 스페인의 범선인 「카라벨」에서 이미지를 얻은 것으로 특징은 옆머리를 부풀리고 뒷머리를 짧게 커트하여 부풀린 스타일로 범선의 군선선은 스파드감과 넓은 하늘로 뻗어가는 자유시

대여성의 새로운 매력으로 등장하였다²⁷⁾. 「부로롱 스타일」은 꽃과 꽃봉오리의 이미지로 특징은 쇼트헤어로 머리 한가운데에서부터 후두부를 동그랗게 부풀도록 한 동양적인 발형이라 할 수 있다²⁸⁾. 전반적으로 해방 이후에는 어깨 정도로 긴 머리가, 1950년대 후반에는 점차 짧은 머리가 유행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도약기 (1960~1969년)

'50년대에 주로 악세사리의 선택법에 대한 기사에서 '60년대에는 선택법과 더불어 복장과의 조화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²⁹⁾. 아래는 복장과의 조화에 대한 기사이다.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행한 굽이 뾰족한 미식 「하이힐」은 '63년 쌀값이 경증된 불경기속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으며, '60년대 중반에는 유행하던 뾰족형이 후퇴하고 원형이 유행했고³⁰⁾ 키 큰 여대생들간에 반장화식의 단화를 찾는 사람도 있었다. 한참 높아까지 기어오르던 울 「부츠」가 사라진 뒤의 「힐·모드」도 사뭇 「미니」화의 경향을 더욱 짙게 했는데 이는 곧 어깨에 부담감을 주었던 두터운 「오버·코트」가 차츰 자취를 감추면서 「미니모드」가 우세해졌듯이 '68년에는 겨울에도 「미니」가 아름다운 각선미를 그대로 노출시켜줄 새로운 물건 일명 「부츠스타킹」이 나왔다. 이것을 힐이 달린 스타킹이라고도 했다³¹⁾. 또한 이 시기에는 「미니모드」에 질려 「맥시모드」를 쫓는 여성들이 나타남으로써 「미니」, 「맥시」 유행이 병존해 가기 시작했다³²⁾.

파라솔도 계속 애용되었으나 모자와 선글라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³³⁾. 파라솔은 「명주」, 「테트론」,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 인

24) 「구두」, 「매일신문」, 1959. 6. 13. p.4.

25) 「메이크업의 秘訣」, 「매일신문」, 1958. 6. 29. p.4.

「여름철 化粧을 위하여」, 「매일신문」, 1958. 6. 8. p.4., 「겨울맞이 皮膚美容」, 「매일신문」, 1968. 11. 30. p.4.

26) 「今夏流行은 「삐루에트」」, 「매일신문」, 1957. 5. 30. p.4.

27) 「바리의 봄 新型머리」, 「매일신문」, 1958. 4. 6. p.4.

28) 「헤어 스타일 二題」, 「매일신문」, 1958. 4. 26. p.4.

29) 「여성과 모자」, 「매일신문」, 1963. 4. 14. p.7.

「악세사리무드」, 「매일신문」, 1963. 11. 10.

30) 「추동용구두안내」, 「매일신문」, 1966. 10. 6. p.4.

31) 「동면없는 「미니」 시대」, 「매일신문」, 1968. 10. 30. p.6.

32) 「「미니모드」 신발에도」, 「매일신문」, 1968. 3. 20. p.8.

가가 있었다. 선글라스는 '62년에는 큰 것이, '63년에는 작은 것이 유행했으며, 테는 「플라스틱」제의 검은테가 유행했다. '64년에는 얼굴모양과 안경에 대해, '65년에는 선글라스의 전체적인 면에 대해, '67년에는 「선·글라스」의 장단점에 대해 '69년에는 「선·글라스」의 유행에 대해서 쓰고 있으며 이때 지배적인 형은 원형과 타원형이었다. 게다가 화장에 따라 색깔도 바꾼다고 했다. 핸드백은 둥근형보다 사각형의 것으로서 큼직하고 모양이 단순하며 실용적인 것을 많이 들었다. 빛깔은 흰색, 미색, 고동색 등이 많았으나 의복 색깔에 맞추어 취미대로 선택하였다. '60년대 중반 이후 「미니·스커트」에 맞춰 「미니·백」이 단연 인기였다³⁴⁾. 모자는 여름철의 햇빛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였다. '65년 6월 18일자 기사에서 서울지방은 올 여름 「파라솔」대신 모자(파나마)가 많이 유행하고 있으나 대구엔 뜬금없게 보일 뿐 아직 유행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쓰고 있으며 모자도 옷에 따라 써야 한다고 했다³⁵⁾. '68년 7월 26일 기사에서 「파나마」와 망사로 만든 모자가 대단히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고 썼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중성도시에서 지방도시로의 유행확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림을 예측할 수 있다.

양말은 '60년대 중반부터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각선미가 매력의 포인트로 부각되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었다. '65년 9월 23일 기사에는 「네트」양말의 유행에 대해 기사화되었다.

그 외에 네클리스, 이어링, 브레스레트(팔찌), 브로치 등의 이용으로 매력적인 의상의 「무드」를 연출

했다.

'50년대 후반부터 각 메이커들이 화운데이션을 비롯해 립스틱, 콤팩트, 네일라카 등 메이크업 제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60년대에는 화장품의 국산화가 늘어났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단순히 화장하는 법이나 피부관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피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체질부터 알아야 하고 몸에 맞지 않는 화장은 피부를 거칠게 하기 쉬우므로 피부의 성질에 맞는 화장법을 선택하는 과학적인 손질법,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마사지법, 화학적 방법보다 과일을 사용한 자연 「마사지」가 더욱 효과가 있어 야채나 과일을 이용한 팩 방법 등이 자주 기사화되었다³⁶⁾.

또한 이 시기에는 얼굴 미용뿐만 아니라 여성의 미의 척도로서 손마사지법 또는 화장과 옷에 잘 조화되는 메니큐어 선택 등을 기사화하여 손미용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고 자기의 타입, 분위기, 장소를 가려서 자기에게 맞는 향수를 선택하도록 하는 향수의 올바른 선택과 향수 사용법에 대한 기사 등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³⁷⁾.

이 시기의 머리모양은 화려함과 복고조, 슛컷과 롱헤어 등이 함께 다양하게 유행하였고, 때와 장소에 적절한 머리모양 또는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머리모양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사화 되었다³⁸⁾. 특히, 남성의 얼굴형을 둥근형, 긴형, 모난형으로 크게 구분하여 머리결의 굵기와 얼굴구조의 차이에 따라 알

33) “올 여름 액세서리의 이모저모”, 「매일신문」, 1965. 6. 18. p.4.

34) “초여름의 액세서리”, 「매일신문」, 1967. 6. 7. p.4.

35) “올여름 액세서리 이모저모”, 전계서.

36) “요즘 유행하는 마사지 法 ①”, 「매일신문」, 1963. 3. 16. p.7.

“새로운 마사지 法 ②”, 「매일신문」, 1963. 3. 20. p.7.

“새로운 마사지 法 ③”, 「매일신문」, 1963. 3. 21. p.7.

“새로운 마사지 法 끝”, 「매일신문」, 1963. 4. 10. p.7.35)

“피부영양을 위한 과일 파크법”, 「매일신문」, 1965. 6. 23. p.4.

37) “여름철 손발 화장”, 「매일신문」, 1966. 6. 28. p.4.

“손도 가꾸어야”, 「매일신문」, 1963. 2. 2. p.7.

“여름 향수 용법”, 「매일신문」, 1965. 7. 25.

38) “토끼헤의 헤어스타일 전망”, 「매일신문」, 1963. 1. 13. p.7.

“초여름 헤어스타일”, 「매일신문」, 1966. 5. 25. p.4.

“헤어모드復古경향”, 「매일신문」, 1968. 7. 7. p.5.

맞는 머리모양을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³⁹⁾. '60년대 후반에는 가발이 유행해 몸치장과 아울러 머리결함을 가리는 두가지 구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화 벌이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⁴⁰⁾.

3. 경제 성장기 (1970~1979년)

여성들의 구두는 의상과 함께 끊임없이 유행이 바뀐다. '70년대는 의상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유행하며 함께 공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70년대초에는 의상이 판탈롱 붐을 일으키자 구두 역시 이 판탈롱·스타일에 어울리는 굽은 굽의 끝이 퍼진 것으로 바뀌었다. '6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뒤쪽이 개방된 스타일은 이 시기에 크게 유행하여 시중 여화점에서 나가고 있는 여화의 80% 정도가 이 스타일이었다⁴¹⁾.

'70년대 후반에는 스커트 길이가 갑자기 길어졌다. 길이의 변화는 모자, 구두, 핸드백, 벨트 등 악세사리·패션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특히 미디스커트에는 부츠가 필수조건이 되었다⁴²⁾. 일부 멋쟁이들만 애용하던 부츠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반화돼 부츠는 겨울패션에서 빠뜨릴 수 없는 품목이 되었다. 부츠도 여러 종류의 것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⁴³⁾. 다리에 착달라붙는 하이·롱·부츠에서 헐렁하면서 실용적인 루스·퍼트·부츠로 유행했고 색도 검정외에 붉은 브라운, 옅은 브라운, 와인계통의 브라운, 그레이계의 부츠도 선보였다⁴⁴⁾.

'73년 봄에는 4, 5년전 유행한 앞이 길고 비교적 날씬하며 발등까지 올라오는 스타일이 다시 등장했으며 굽은 사각형 모양으로 2인치~3인치의 비교적

높은 것이 유행했다⁴⁵⁾. '73년 여름에는 밑창을 두껍게 한 코르크 밑창과 스폰지 밑창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76년에는 코르크를 두텁게 댄 밑창은 점차 사라지고 뽕족한 단창이 많이 나가고 날씬한 모양의 밑창에다 발목과 발 등을 묶는 끈은 가늘면서도 콤비 스타일로 색깔 등에 액센트를 주어 날렵하고 경쾌한 노출이 많은 케주얼 스타일이 유행했다. 이렇게 '70년대는 다양한 구두가 유행했는데 이는 '60년대의 소비자들은 신기에 편안한 것보다는 유행을 뒤쫓아가기 바빴으나 이 시기부터는 확실적인 유행의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소비자들의 개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식에 차츰 변화가 생겨 발의 건강과 편안하고 실용적인 구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⁴⁶⁾.

양산은 '70년대 들어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모자와 선글라스는 꾸준히 애용되었다. 모자는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키 작고 큰 얼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순히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여성들이 악세사리를 활용하는 감각이 세련되어지면서 멋을 내는 패션소품으로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 형태는 연령층에 따라 토크, 터번, 베레, 캐프라인 등 다양했다.

종래의 스카프는 머리에 쓰는 것만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70년대 중반 즈음에부터 의상의 발전과 함께 그 용도나 모양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서울에서 실크 패션 쇼가 열려 머리, 어깨, 허리 등에 다양하게 연출했으며 보라색, 분홍, 밝은 청색 등의 화려한 색을 선보였다⁴⁷⁾. '77년 12월

39) "남성얼굴형 헤어스타일", 「매일신문」, 1965. 4. 28.

40) "유럽에도 가발붐", 「매일신문」, 1965. 4. 11. p.4.

"가발붐", 「매일신문」, 1966. 4. 29. p.4.

"미처 몰랐던 노다지 머리털", 「매일신문」, 1965. 7. 15. p.3.

"가발로 거뿔", 「매일신문」, 1969. 7. 2. p.6.

41) "여화의 유행방향은?", 「매일신문」, 1970. 4. 14. p.5.

42) "여성장신구", 「매일신문」, 1970. 9. 28. p.5.

43) "부츠선택요령과 유행경향", 「매일신문」, 1976. 11. 23. p.5.

44) "올겨울 모드와 선택법", 「매일신문」, 1978. 11. 7. p.5.

45) "올봄의 여성구두", 「매일신문」, 1973. 2. 17. p.5.

46) "올봄의 여성구두", 「매일신문」, 1973. 2. 17. p.5.

"굽높은 구두 수명 줄인다", 「매일신문」, 1974. 3. 19. p.5.

"여름 구두 선택·손질", 「매일신문」, 1976. 6. 8. p.5.

"부츠선택요령과 유행경향", 「매일신문」, 1976. 11. 23. p.5.

4일 기사에는 스카프나 머플러는 이제 약세사리가 아닌 옷의 한종류로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며, 금년에도 모직의 큰 스카프와 길게 늘어뜨리는 머플러가 유행인데 특히 스카프에 주머니를 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했다.

핸드백은 실용적인 솔더백이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73년에는 유럽패션계의 영향으로 「손지갑」이 인기를 모았으며⁴⁷⁾ '77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핸드백의 소재가 다양해서 가죽에서부터 코드로이, 트워드, 캔바스 등 온갖 소재가 다 쓰였고, 특히 눈에 띄는 모양은 사각봉투 모양의 납작한 가방이었다⁴⁸⁾.

스타킹은 머플러와 함께 옷차림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품목으로 각광을 받았다. 색은 포도주 색깔, 산호색, 암청색 등이고, 소재는 털, 크리스머스트리, 꽃사슴, 벨 등 재미있는 무늬로서 여성들에게 애호받았다⁴⁹⁾. 이것은 다양한 스타킹 섬유재료와 직조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는 여성의 화장술이 점점 발달하여 연령, 의상, 취미, 분위기에 따라 적절한 표현법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여성 또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숙녀들을 위한 가이드로서 되도록 머리를 자를 때 자신의 얼굴 모양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야 하며, 화장도 되도록 청순함 그대로의 미를 가꾸도록 하는 화장법, 헤어스타일 등을 소개하였다⁵⁰⁾.

또한 바캉스가 생활의 일부로 친숙해지면서 자외선으로 부터의 피부보호법, 선탠법, 바캉스 후의 피부손질법 등 피서지 미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¹⁾.

한편, 화장품은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화장품의 용도라든가 자기 피부가 지방성인지 건성인지를 파악,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될 수 있으면 '로손'과 같이 기름기가 적으며 순한 것을 바르는 게 부작용이 적다며 자신의 피부에 맞는 바른 선택 요령 등도 알려주고 있다⁵²⁾.

모발손질을 다룬 기사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리결을 가지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 50~60회 가량의 브러싱을 하면 머리피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돕는 마사지의 효과를 내어 머리결을 좋아지게 만들어 준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샴푸나 두피마사지로 자극을 주는 내용을 싣고 있다⁵³⁾.

4. 고도 성장기 I (1980~1989년)

'80년대부터는 세계적으로 케쥬얼 웨어가 선봉을 일으켜 그에 어울리는 구두, 머플러, 스카프, 숄, 모자 등의 다양한 연출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 시기는 확실적인 대량생산의 기성복시대이면서도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실용적인 패션경향과 함께 간단하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약세사리의 활용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학생교육이 자율화되어 개성적인 복장에 관심이 높아지자 여학생들에게도 약세사리가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유명브랜드를 도입한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가 늘면서 스포츠용품시장에 각축전이 벌어졌으며 86·88

47) "스카프로 다양하게", 「매일신문」, 1977. 3. 13. p.5.

48) "올여름 여성 「백」", 「매일신문」, 1973. 6. 1. p.5.

49) "약세사리", 「매일신문」, 1977. 12. 4. p.5.

50) "약세사리", 「매일신문」, 1977. 12. 4. p.5.

51) "머리손질과 화장", 「매일신문」, 1972. 2. 1. p.5.

"豫備淑女들을 위한 가이드", 「매일신문」, 1975. 2. 4. p.5.

"豫備淑女 댁시 어떻게 가꿀까", 「매일신문」, 1976. 1. 16. p.5.

"豫備淑女를 위한 가이드", 「매일신문」, 1978. 2. 9. p.5.

52) "海水浴 후의 화장법과 피부손질", 「매일신문」, 1971. 8. 10. p.5.

"避暑地 미용법", 「매일신문」, 1978. 7. 16. p.5.

53) "化粧品 잘못쓰면 逆效", 「매일신문」, 1978. 2. 18. p.5.

54) "머리-손질 자주 않으면 거칠어져", 「매일신문」, 1972. 11. 30. p.4.

"겨울철 머리손질", 「매일신문」, 1974. 1. 29. p.5.

게임을 앞두고 특히 신발제조업체 등은 판매경쟁을 벌였다.

구두는 편안한 스타일의 의복이 유행하게 되자 '80년대 이후부터는 실용적이고 편한 낮은 굽이 유행되었다⁵⁵⁾.

기성화점이 늘어나면서 불량품 문제도 많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경제불황에 대처하는 소비자들의 알뜰심리를 이용해서 구두, 핸드백, 부츠, 가죽코트, 가죽가방 등 피혁제품의 매출 빼고 구겨지거나 늘어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고 색상도 바꾸는 이색업소가 생겨나기도 했다⁵⁶⁾.

부츠의 판매는 '70년대 이후 계속 활기를 띠었으며 앵글형과 하프형이 '80년대 겨울 전반에 유행했다.

모자는 특별히 크게 유행된 형태는 없었으나 독특한 멋을 연출하기 위해 머플러 또는 솔과 함께 조화롭게 착용했으며 남작관 베레모, 챙이 좁고 머리 부분이 꼭 맞는 클래식형, 니트모자 등이 인기를 끌었다.

모자와 더불어 빠질 수 없는 악세서리인 선글라스는 디자인이 다양화되어 보안용으로 보다 전체적인 토탈·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더욱 인식되어졌으며 '81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맥아더형의 선글라스가 '82년까지 인기절정을 이루었으며 '83년에는 색이 더욱 대담하고 다양해졌으며 기하학적인 태를 두른 기발한 구조로 되어 있는 슈퍼·선글라스가 유행했다. 이렇게 '80년대의 선글라스는 완전한 패션의 한 부분이 되었다.

장갑은 캐주얼 웨어와 스포츠 웨어의 영향으로 안에 털을 넣은 스키장갑, 손가락없는 장갑, 목이 긴 장갑 등 그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색깔 역시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스카프와 머플러 역시 개성을 연출하는 소품으로

모자와 함께 정장과 캐주얼에 따라 알맞게 연출하였다⁵⁷⁾.

이 시기의 피부미용은 자외선 노출을 삼가하고 외출시에는 자외선 차단크림을 꼭 사용하라는 내용이 자주 기사화되었다. 과다한 노출로 그을린 피부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화속진과 피부암, 습진 등의 만성적인 피부병의 유발요인이 되며, 비타민 D는 일상생활에서 쬐는 햇볕량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광욕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⁵⁸⁾.

또한 피부미용의 새로운 방법으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을 소개하고 있다. 손이나 스펀지, 천연모 솔을 이용하여 등글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주면 필링을 통해 각질이 제거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쓰고 있다⁵⁹⁾.

'80년대 들어서 자연건강식품, 천연섬유 등 천연적인 것에 대한 세계적 선호의 증가 추세와 함께 살구씨, 복숭아씨, 당귀 등 한약재의 생약성분만을 원료로 한 본격 한방화장품이 개발 시판되고 있었으나 하면 기존의 화학화장품 제조업체들도 한약재를 섞은 천연성분의 화장품을 개발해내는 등 한방화장품 또는 자연화장품 등이 화장품업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⁶⁰⁾.

손이나 얼굴 피부미용에 못지 않게 노쇠현상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발의 위생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시간이 있으면 맨발로 모래위 및 자갈밭을 걷거나 평소 충분히 걷고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여 발건강을 지키도록 하였다⁶¹⁾.

또한 성형수술의 유행으로 일시적인 성형효과를 주는 기구들이 인기를 끌었다. 접착제를 발라 쌍꺼풀을 만든다든지, 코에 이물질들을 넣어 필요할 때 코를 세우는 등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시적 성형을 할

55) "상품정보", 「매일신문」, 1981. 3. 13. p.5.

56) "구겨진 제품을 새것처럼", 「매일신문」, 1982. 7. 7. p.6.

57) "패션경향 따라 간단히 개성연출", 「매일신문」, 1981. 12. 3. p.6.

"스카프 봄을 맞는 여성의 멋", 「매일신문」, 1982. 3. 29. p.6.

58) "과다한 햇볕 노출-피부노쇠속진", 「매일신문」, 1981. 6. 20. p.10.

"피서철의 피부관리 요령", 「매일신문」, 1982. 8. 2. p.6.

59) "여름철 얼굴 가꾸기", 「매일신문」, 1984. 6. 11. p.6.

60) "다가온 한방미용시대", 「매일신문」, 1987. 3. 3. p.6.

61) "발위생관리에 관심을", 「매일신문」, 1985. 12. 15. p.6.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항상 제거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다⁶²⁾.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여성들의 머리 염색이 유행처럼 번져 컬러시대를 방불케 했는데 이는 자기에게 알맞는 색으로 적절하게 염색을 하므로서 자기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현대문명이 가져다준 상품화된 아름다움은 혐오감을 준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⁶³⁾.

이외에도 거품타입의 화장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두발용품은 물론 파운데이션, 세안용품까지 거품타입의 제품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헤어 무스의 등장은 미장원에 가지 않고도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헤어 스타일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⁶⁴⁾.

5. 고도 성장기 II(1990~2000년)

'90년대는 악세사리의 필수품시대라 할 수 있다. 88올림픽 이후 악세사리 취향이 달라져 작고 무난한 것 위주로 「눈에 띄지 않는 멋」을 선호하던 경향에서 크고 화려한 것, 개성적인 장신구로 「두드러지는 멋」을 표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또 과거 악세사리 착용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던 50~60대 이상 노년층까지 대담한 악세사리를 즐겨하는 등 토탈패션 시대의 새로운 멋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한마디로 연령의 노소·직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개성적인 악세사리 멋내기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패션가에 남성 악세사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남성 악세사리 전문매장이 속속 개장되어 인기 코너로 부상되었다⁶⁵⁾.

구두는 해마다 각가지 모양으로 바뀌면서 유행하였는데 '92년에는 미니스커트, 반바지의 유행과 함께

20대 멋쟁이의 필수품으로 롱부츠가 등장했으며 대부분 「스웨이드」를 소재로 했다⁶⁶⁾. '93년에는 나팔바지와 함께 통굽구두가 거리를 누볐으며 여름이면 흰 구두가 등장했지만 이때부터 검정구두 또는 베이지색 갈색 등이 신겨졌다⁶⁷⁾. '94년에도 역시 앞이 뭉뚱한 통굽구두와 군화처럼 끈을 매는 남성풍 구두가 젊은 감각과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⁶⁸⁾. '94년에는 운동화의 활동성과 샌들의 간편함을 살려 야외용뿐 아니라 반바지와 조화를 이룬 도심형 패션형 신발로서 스포츠 샌들이 큰 인기를 모았으며⁶⁹⁾ 스포츠화에도 패션성을 살리거나 운동화 밑창을 구두굽처럼 높여서 외출용으로 신었다⁷⁰⁾. '95년에는 앞은 막혔지만 뒤축이 없는 여성구두가 유행했으며 이것을 프랑수아에서 이름을 따서 싸보(Sabot)라고 불렀다⁷¹⁾.

남성의 구두도 다양했으며 특히 남성 샌들이 인기를 모았다. '96년에는 복고풍 샌들 즉 '60~'70년대를 풍미했던 앞이 막히고 뒤가 트인 구두가 유행했다.

모자는 햇볕차단 못지않게 멋내기의 이중효과로 '90년대 들어 감각과 멋쟁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하여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에게 일반화되었다. 또한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햇빛차단과 함께 멋스럽고 활동성이 높은 모자를 많이 찾게 되었다. 밀짚모자, 여성 정장용 모자, 크라운이 높지 않은 병거지, 야구·해군모자, 모택동 모자 등 다양한 모자를 착용했으며 특히 '92년 이후 남녀노소 막론하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야구 모자는 랩, 레게음악의 유행 흐름에 맞춰 한결 원색적으로 컬러풀해졌으며 앞창에 갖가지 문양으로 수를 놓은 것 등 다양화되었다⁷²⁾.

'95년에는 베레모를 약간씩 변형시킨 빵모자 스타

62) 「원하는 쌍꺼풀 내손으로」, 「매일신문」, 1987. 8. 17. p.6.

63) 「여성 머리 염색」, 「매일신문」, 1981. 6. 15. p.10.

64) 「거품 화장품 人氣 모으다」, 「매일신문」, 1988. 10. 1. p.8.

65) 「패션가 남성 액세서리 바람」, 「매일신문」, 1996. 4. 3. p.22.

66) 「스웨이드 소재 부츠·가방 등 대유행」, 「매일신문」, 1992. 1. 17. p.20.

67) 「유행통신」, 「매일신문」, 1993. 5. 24. p.11.

68) 「봄철구두」, 「매일신문」, 1994. 4. 4. p.11.

69) 「스포츠 샌들 큰 인기」, 「매일신문」, 1994. 10. 28. p.8.

70) 「스포츠화에도 패션물결」, 「매일신문」, 1994. 10. 28. p.8.

71) 「뒤축없는 여성구두 인기」, 「매일신문」, 1995. 6. 7. p.10.

72) 「여름멋쟁이 필수항목 모자패션」, 「매일신문」, 1995. 5. 23. p.15.

일이 유행되어 여성의 귀염성을 강조했다⁷³⁾.

선글라스는 '80년대에 큰 것이 유행했으나 '90년대는 작고 색은 청회색인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여성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 사치품에서 일상품이 되었으며 이에 부응하듯 과격적인 디자인들이 등장했다. '93년 이후에는 한때 유행했던 동전처럼 동그란 것은 사라지고 나비 모양으로 끝이 약간 올라간 디자인이 유행했다⁷⁴⁾.

스타킹은 미니스커트·미니팬츠가 다시 유행의 주류가 되면서 다양화 되어가는 변화를 보였다. '80년대말 이후 패션성이 강조된 스타킹이 등장했으나 별호응을 못얻다가 '90년대초에 들어와 반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6가지 기본색 위주에서 약 60가지로 크게 다양화 되었으며 무늬도 잔잔한 물방울 무늬나 작은 꽃무늬가 전체에 놓여진 것, 발목 부근을 조그만 리본·꽃·모조보석들로 포인트를 준 것, 옆선을 꽃무늬로 장식해 다리선을 길게 보이도록 한 것 등 다양했다⁷⁵⁾. 이러한 스타킹 패션화 추세는 그간 구미여성들에 비해 다리 콤플렉스가 컸던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이야 어떻게 보든」식의 자기연출 의지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카프는 여러 가지 패션소품 가운데 가장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92년에는 매니쉬한 여성 정장에 체크·물방울무늬가 유행했고 '94년에는 내추럴함을 강조하는 의상분위기와 흐름을 같이해 소재나

색상, 무늬 등이 한결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다⁷⁶⁾. '95년에는 화려한 원색보다 복고풍의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으며⁷⁷⁾ 미니스카프가 유행하였는데 들레가 파인 옷에 주로 이용했으며 파스텔톤의 단색에서부터 체크무늬, 사선무늬, 꽃무늬 등 다양했다. 또한 스카프·코디패션쇼가 대구백화점 본점에서 열렸다. 여기서 '60년대의 고전적 이미지에다 선명한 컬러, 세련된 현대풍 디자인이 접목된 제품을 선보였다⁷⁸⁾.

그 외에도 외류·신발 등의 복고풍을 타고 버플러 겸용 넥타이인 「아스콧다이」가 10여년만에 다시 등장하여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⁷⁹⁾.

'95년에는 비닐소재 패션소품이 나오기 시작하여 인기를 모았으며 벨트도 투명 비닐이나 광택소재를 이용하였다.

의복부속품은 이 시기부터 소비자의 고감각에 부응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되었으며 각 부속품에 대한 표현에도 이제 패션양말, 패션양산, 패션우산, 패션모자 등 패션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다⁸⁰⁾.

'97년에는 키토산과 레이온을 합성해 섬유화시킨 신소재로 만든 미용마스크, 양말, 타월 등이 선을 보이면서 섬유신소재 개발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⁸¹⁾ 단순히 보호와 보온의 기능적 측면에서 벗어나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패션양말 전문점이 인기를 끌

73) “올겨울모자”, 「매일신문」, 1995. 11. 13. p.14.

74) “유행통신”, 「매일신문」, 1993. 5. 3. p.11.

“선글라스 여름 벗내기 ‘안정맞춤’”, 「매일신문」, 1995. 5. 2. p.15.

75) “패션스타킹 다리맵시 강조유행”, 1991. 4. 24. p.18.

76) “액센트 강조 개성 창조물”, 「매일신문」, 1994. 11. 14. p.15.

77) “머플러에도 복고바람”, 「매일신문」, 1995. 9. 12. p.11.

78) “스카프패션쇼”, 「매일신문」, 1995. 9. 5. p.10.

79) “경제팬츠”, 「매일신문」, 1992. 12. 1. p.6.

“애스콧다이 유행”, 「매일신문」, 1996. 1. 16.

80) “패션액세서리 인기”, 「매일신문」, 1992. 3. 30. p.6.

“멋과 시원함 - 패션부채”, 「매일신문」, 1995. 6. 26. p.11.

“다양한 패션 양말”, 「매일신문」, 1996. 1. 3. p.11.

“패션모자 유행예고”, 「매일신문」, 1996. 3. 15. p.11.

“복고풍 샌들 유행”, 「매일신문」, 1996. 4. 2. p.11.

“패션목걸이 인기”, 「매일신문」, 1996. 4. 11. p.11.

“다양한 패션우산”, 「매일신문」, 1996. 5. 10. p.11.

“패션양산”, 「매일신문」, 1996. 8. 13. p.10.

81) “개껍대기서 추출, 키토산 원료”, 「매일신문」, 1997. 7. 30.

게 되었다⁸²⁾.

'99년 초에는 모자 달린 T셔츠, 또는 실내화 같은 느낌의 굽없는 구두가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것은 편안함과 실용성, 활동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⁸³⁾.

2000년 봄·여름 악세사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주는 누드 목걸이, 누드 머리핀, 투명시계 등이 신세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⁸⁴⁾.

이러한 경향은 노출이 강조된 패션이 유행하면서 여성들의 속옷에도 적용되어 어깨끈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걸웃처럼 드러내 놓고 입을 수 있는 브라⁸⁵⁾도 선보이고 있다. 색상면에서도 살색 계통의 속옷이 잘 나가는 것도 특징이다⁸⁶⁾.

그러나 가을·겨울 패션 경향이 1980년대 복고풍의 고급스러움을 선호함에 따라 악세사리 역시 이전의 심플함에서 벗어나 골드 체인이나 폭이 넓은 두꺼운 벨트, 보석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비클 장식, 커다란 귀걸이 등으로 한층 더 대담해지고 있다⁸⁷⁾. 이러한 2000년대의 패션경향은 섹스어필하는 부분과 복고풍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단지 2000년의 시대적 특징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2000년대는 유행의 복합시기라 규정짓기에 적합하다. 이 외에 신체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인체공학 상품이 가방, 선글라스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등편의 쿠션디자인을 등의 근육 모양에 맞춰 가방 무게를 어깨와 등 전체로 분산, 무게를 30% 정도 덜 느끼게 해 주는 테크노백⁸⁸⁾과 쿼

으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주는 고글형 선글라스는 착용감이 안정되어 활동량이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⁸⁹⁾.

메이크 업은 종래의 기교가 없는 화장법을 탈피하고,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며, 시간과 장소, 목적에 따른 다양한 자기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독특하고 변화성 있는 화장법이 현대여성의 효과적인 이미지업 수단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상, 화장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차밍스쿨이라든가 메이크 업 강좌가 붐을 이루어 이러한 여성의 욕구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⁹⁰⁾.

'98년부터는 토탈개념의 미를 추구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대두되기 시작했다⁹¹⁾.

자기 표현에는 남녀 구별이 없듯이 남성용 화장품도 인기를 끌어 신세대를 겨냥한 남성향수를 비롯해 스킨 무스, 40, 50대를 겨냥한 잔주름 제거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선을 보였다⁹²⁾.

한편, 현대의 각종 공해에 대한 저항감과 함께 화학성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반작용으로 천연재료의 이른바 내추럴 화장품이 '80년대에 이어 다시 새롭게 부각되었다. 천연성분을 첨가한 화장품에서 천연재료들을 이용해 직접 자가 제조한 천연미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서울의 강봉수 할머니가 30년간 애용해 온 미용식이요법을 공개한 책이 출판되고, 평양의 50대 농부 홍쌍리씨는 매실을 이용한 각종 피부미용법을 쓴

82) "부업 돈줄 법시다-패션양발 전문점", 「매일신문」, 1997. 8. 18.

83) "실내화같은 느낌", 「매일신문」, 1999. 1. 3.

84) "속보이는 제품 잘 팔린다", 2000. 2. 16.

85) "속옷 같지 않은 속옷 울 여름 바람몰이 예고", 2000. 5. 24.

86) "노출 신경", 2000. 6. 30.

87) "올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 2000. 8. 22.

88) "인체공학 상품 붐", 2000. 3. 22.

89) "올 유행 결혼예복·선글라스", 2000. 3. 1.

90) "여성, 가정미용교실 '문전성시'화원", 「매일신문」, 1992. 11. 18. p.20.

"차밍스쿨을 찾아서", 「매일신문」, 1993. 4. 12. p.10.

"메이크업도 개성화 바람", 「매일신문」, 1995. 3. 28. p.13.

91) "이미지 메이킹 뜬다", 「매일신문」, 1999. 11. 11.

"모임많은 연말연시 이미지 메이킹 요령", 「매일신문」, 1999. 12. 15.

92) "향수판매 급신장", 「매일신문」, 1994. 11. 2. p.9.

"잔주름 제거제 찾는 40~50대", 「매일신문」, 1996. 8. 16. p.11.

"남성화장품 판매 급신장", 「매일신문」, 1998. 6. 6.

책을 출간했으며 그밖에 쑥뜸의 미용효과 등 천연미용법에 관련된 서적들이 출판되면서 더욱 더 확산되었다⁹³⁾.

머리모양에 있어서는 '80년대 불었던 염색바람이 10년만에 되돌아와 머리 전체를 물들이거나 염색머리를 다시 부분적으로 탈색하여 푹푹 튀는 멋을 강조하는 등 훨씬 다양해졌고, 여성들 뿐만 아니라 신세대 남성들도 염색이나 부분탈색으로 개성을 표현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려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멋감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⁹⁴⁾.

'90년대 후반부터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려는 컨템퍼러리 룩 헤어 패션이 신세대 여성들을 겨냥하여 발표되면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⁹⁵⁾.

또한 미용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최신유행스타일과 세계적 미용기술을 내건 외국계 유명 헤어브랜드들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 미용업계도 국제화를 위한 진동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사화 되었다⁹⁶⁾.

2000년의 기사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투명화장법의 유행이다.

피부톤은 일부러 잡티를 가리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아이섀도는 단색 하나만 이용하여 마스크라로 눈을 강조한다. 입술을 립글로스들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볼 부위에 동그랗게 볼터치를 췌 어리고 생기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⁹⁷⁾.

최근 얼굴 미용 못지 않게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디용품⁹⁸⁾이 다양하게 선보일 뿐만 아니라 발관리 방법⁹⁹⁾ 및 향기를 이용한 아로마요법¹⁰⁰⁾ 등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활 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

심 증가로 단순히 몸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으로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일본 잡지에 실린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패션을 따라 잡으려는 신세대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¹⁰¹⁾ 이들은 과거 머리색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던 노랑, 빨강, 녹색 등 다양한 컬러의 염색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잦은 파마, 염색 등으로 손상받기 쉬운 모발의 관리 방법도 기사화되었다¹⁰²⁾.

IV. 결 론

194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매일신문」에 게재된 복식관련기사 중 악세사리,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을 분석하여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식문화현상을 살펴보았다.

1946~1959년의 복식과 관련된 기사는 악세사리 8건,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 27건 총 35건이었다. 악세사리에 관한 기사는 손수건, 이어링, 넥크레스, 구두, 선글라스 등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종류나 활용법에 관한 내용은 별로 많지 않았다. 피부미용은 '50년대 중반부터 생활이 안정되면서 단순히 피부보호계 역할뿐만 아니라 미의 추구로서 색조화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머리모양은 전반적으로 해방 이후의 긴머리 스타일이 '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점차 짧은 머리로 유행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1960년~1969년의 복식과 관련된 기사는 악세사리 41건,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 98건 총 139건이었다. 악세사리에 관한 기사는 선택법과 더불어 복장

93) "천연성분 첨가화장품", 「매일신문」, 1994. 8. 10. p.13.

"자가제로 천연미용법 인기", 「매일신문」, 1995. 12. 25. p.14.

94) "멋내기 머리 염색 유행", 「매일신문」, 1995. 11. 6. p.14.

95) "컨템퍼러리룩 신세대 여성 일터 스타일" 「매일신문」, 1998. 3. 4.

96) "미용업계도 국제화 진동", 「매일신문」, 1995. 3. 7. p.13.

97) "올 여름 유행 메이크업", 2000. 6. 27.

98) "붓물 터진 보디용품", 2000. 3. 8.

99) "여름철 발관리 방법", 2000. 8. 8.

100) "아로마 요법 질병예방 건강 유지", 2000. 3. 1.

101) "日 잡지 모델 따라하기", 2000. 6. 29.

102) "가을 모발 관리", 2000. 10. 18.

과의 조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피부미용에 관련된 기사도 여성복과 마찬가지로 급증하는데 마사지나 팩방법 등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1970년~1979년은 악세사리 38건,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 62건, 총 100건이었다. 악세사리는 의상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의 구두가 유행하며 함께 공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부미용에 관한 기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연령, 의상, 취미, 분위기에 따라 적절한 표현법을 소개하고 있고, 머리모양은 유행경향보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리결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이 실렸다.

1980년~1989년 복식과 관련된 기사는 악세사리 27건,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 81건 총 108건이었다. 악세사리에 관한 기사는 세계적으로 케쥬얼 웨어가 신풍을 일으켜 그에 어울리는 구두, 머플러, 스카프, 숄, 모자 등의 다양한 연출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 시기는 실용적인 패션경향과 함께 간단하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액세서리의 활용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1990년~2000년의 복식과 관련된 기사는 악세사리 71건,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 82건 총 153건이었다. 악세사리는 취향이 달라져 크고 화려한 것, 개성적인 장신구로 두드러진 멋을 표현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며 피부미용에 관한 기사는 다양한 자기 개성을 연출할 수 있도록 차밍스쿨, 메이크업 강좌 등이 신세대 주부들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었고 새로운 감각을 지닌 신세대 남녀의 부분 염색이 유행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개성있는 자기연출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2000년은 의류의 전반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악세사리에 관한 것으로는 노출이 강조된 것들이 유행하는 반면 복고풍의 디자인이나 형태도 복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체 공학적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피부미용 및 헤어스타일에 관한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화장법이 유행하였다. 또한 몸매 관리에 관심이 커지면서 보디용품과 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향기요법과 같은 갖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에 관한 것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패션을 닮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색으로는

다양한 컬러의 염색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현주 (1991).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 김정진 (1997).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1집.
- 김정진 (1996). 김은연,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 -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1집.
- 김정진 (1997). 김은정,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 -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1집.
- 김진구 (1992). 개화기 한국인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2) -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 생활과학연구* 제10집.
- 매일신문 1946년~2000년
- 박길순 (1991).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길순, 김진구 (1990).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국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 *복식*, 제15권.
- 박순양 (1992). 한국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 1945년 이후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부 (1994). 한국 복식 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 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제22권.
- 서희영 (1991). 우리나라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연구 - 1953년부터 1988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명임 (1989).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 1920년부터 1945년까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 (1984). 패션잡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 (1996). 해방 이후 한국 패션변천. *군산대학교 「논문집」*, 제23집.
- 유송옥, 권혜옥 (1996).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제26집.
- 유수경 (1989).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영자, 최윤해, 현승희 (1998). 매일신문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I)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중심으로-. *복식*, 제37권.
- 은영자. (2001). 매일신문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II) -피부관리 및 위생에 관한 변천을 중심으로-. *과학논집* 제 27집, 계명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이경자 (1982).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정혜영 (1978). 가계별에 의한 상표와 봉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2권 제1호.

조규화 (1997). 韓國 패션에 나타난 美意識. 패션비즈니스학회.

최선희 (1993). 조선일보에 나타난 복식변천과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일제문화정치시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찬석 (1996). 한국현대여성의 복식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